

장혁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에 흥미” 최수영 “한 번 본 것 사진처럼 기억”



장혁

OCN '본 대로 말하라' 2월 1일 첫 방송

천재 프로파일러·기억력 좋은 형사
돌아온 연쇄 살인마 추적 스릴러극

장르극 전문 채널을 표방하는 OCN과 장르극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보여주는 배우 장혁(본명 정용준·43)이 다시 뭉쳤다. 다음 달 1일 방송을 시작하는 OCN '본 대로 말하라'는 천재 프로파일러와 한 번 본 것은 그대로 기억하는 능력을 갖춘 형사가 죽은 줄 알았던 연쇄 살인마를 추적하는 스릴러극이다.

장혁은 지금의 OCN을 있게 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보이스' 이후 3년 만에 OCN 장르극으로 돌아왔다. 그가 이 드라마에서 맡은 천재 프로파일러 '오현재'라는 인물은 연쇄 살인마가 저지른 폭발 사고로 약혼자를 잃은 후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이다.

29일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나타난 장혁은 프로파일링이라는 수사기법 소재에 관심이 가 드라마에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혁은 “장르극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 안에서 프로파일러가 심리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단서를 찾아가는 게 흥미로웠다”며 “오현재라는 인물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룹 소녀시대 출신으로 가수 겸 배우인 최수영(30)은 “장르극에 도전해보고 싶었다”라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그가 연기하는 ‘차수영’은 한번 본 것은 사진처럼 기억하는 형사로, 극 중 오현재의 지시를 받아 사건 현장을 뛰어다닌다. 최수영은 “이 드라마의 제목 ‘본 대로 말하라’처럼 본 대로 말하는 차수영의 우직한 성격이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했다. 그런 메시지에 끌려서 출연했다”고 말했다. 4개월간 액션을 연습하기도 했다는 그는 “아직 써먹을 일이 없었지만, 곧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출을 맡은 김상훈 PD는 “‘본 대로 말하라’ 과정에서 단서를 찾아 범인에게 다가가는 드라마다. 그 안에서 각자의 상처를 인간적인 사랑으로 치유해나가는 과정을 담는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1일 밤 10시 50분 첫 방송. /연합뉴스



최수영

‘기생충’ 오스카 레이스에 탄력

북미 상영관 1000개 돌파
봉 감독 “좋은 결과 얻어야”

영화 ‘기생충’의 북미 지역 상영관 수가 처음으로 1천개를 돌파했다.

지난해 10월 11일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3개 상영관에서 선(先) 개봉한 이후 최다 상영관 수다.

골든글로브를 비롯한 각종 북미 시상식을 휩쓴 데다, 다음 달 9일(현지시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6개 부문 후보에 지명되면서 입소문을 탄 덕분이다.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기생충’ 북미 지역 상영관은 지난 26일 기준 1060개로 집계됐다. 박스오피스 매출도 3091만2648달러(365억원)에 달했다. 역대 북미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역대 흥행 수익 1위 기록이며, 북미에서 선보인 모든 역대 외국어 영화 가운데 흥행 7위에 해당한다. 이 추세라면 6위인 ‘아멜리아’(3322만5499달러)도 곧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

개봉한 지 100일이 지난 ‘기생충’은 한 때 상영관 수가 620개까지 늘었으나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이달 6일 골든 글로브 시상식을 전후해 상영관 수가 다시 급격히 늘고 있다.

‘기생충’은 북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흥행 중이다. 이달 10일 개봉해 5위로 출발했으나 지난 주말에는 4위로 한 단계 올랐다. 일본 배급사 비터스엔도에 따르면 일본 내 매출도 10억엔(108억원)을 돌파했다. 역대 일본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중 흥행 수익 7위에 해당한다.

‘기생충’의 해외 흥행은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생충’은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각본·편집·미술·국제영화상까지 총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국제영화상(옛 외국어영화상) 이외에 1~2개 부문에서 더 상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아카데미 측은 28일 공식 SNS에 “올해의 오스카 후보들과 만나보세요”라며



연합뉴스

지난 12일 제25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오른 영화인들 사진을 게재, 눈길을 끌었다.

‘기생충’ 제작자인 박신애 E&A 대표가 맨 앞줄에 앉았고, 봉 감독은 오른쪽 지점에 서서 웃으며 포즈를 취했다.

‘기생충’의 화제성을 증명하듯 봉 감독은 후보들 사이에서도 정상급 인기를 누렸다.

미국 영화 전문 매체 인디와이어는 28일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자 초청 공식 오찬에서 “가장 따뜻한 환대와 환호를 받은 사람이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었다”며 “봉 감독이 후보들 간 인기 경쟁에서 이겼다”고 썼다.

봉 감독의 오스카 라이벌이자 오랜 팬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나는 봉 감독과 대어섰던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며 자랑했다. 오찬에서는 타란티노 감독 외에도 ‘조조 래빗’의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이 봉 감독의 팬임을 드러냈다.

한편, 봉 감독은 미국 연예 매체 베네티컬과 인터뷰에서 “아카데미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며 “마운드에 강제로 올라간 야구선수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정신과 의사가 내가 불안감이 심하다고 하더라.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강박적 성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영화 제작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플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더 게임:0시를 향하여(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UHD 숨터(재)	00 포레스트(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우아한 모녀(재)	00 12 MBC 뉴스 20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50 뽀뽀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특 보험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지 동물교실 2(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테테루 테디베어 마을의 비밀 25 출동! 애니멀 레스큐 40 엉뚱발랄 공순이와 친구들 5 55 숲속 친구 스토리즈			00 뉴스브리핑
[3]	10 이웃집 찰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나쁜사랑(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00 기분 좋은 날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시노스톤 프리임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25 양코리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휴머니얼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kbc 특집다큐 남도문예. 크세상스 시대를 열다 55 닥터 365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더 게임:0시를 향하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다큐 인사이트 55 더 라이브	00 포레스트	05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휴머니얼	00 맛남의 광장
[11]	35 UHD 숨터 40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05 문화콘서트 난장 55 양코리 설특집 2020 송가인 콘서트 고맙습니다	50 점수! 무비월드 스페셜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나이트라인

EBS1

07:00 출동! 슈퍼핑크	12:10 팻하트	17:45 올리 앤 문(재)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3:00 다큐 시선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08:00 땀방울 유치원	13:5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비그와 블랙캣
08:30 미니특급대 슈퍼공룡파워	14:45 다큐영화 달팽이(재)	19:30 생방송 판다다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20:00 4남매 쇼
09:0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5:10 출동! 슈퍼핑크(재)	20:30 자이언트 팽TV
09:15 올리 앤 문	15:25 트리푸름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30 다큐영화 달팽이	15:55 미니특급대 슈퍼공룡파워(재)	<비온드 아르헨티나-컬러풀 랜드>
09:40 아옹멍멍 귀여워2	16:10 예술아 놀자	21:30 한국기행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퍼 피그(재)	<겨울의 산사 4부
10:30 한국기행(재)	16:40 땀방울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지금 이대로, 더불어 행복하라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1:50 다큐 시선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워터지 뮤직박스	22:45 심어즈:시대와 함께 울고 웃다
12:00 EBS 정오뉴스	17: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재)	23:3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30일(음 1월 6일 壬申)

<p>36년생 선후를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48년생 아직은 활발하나 갑자기 중단 될 수도 있다. 60년생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72년생 하나의 기쁨과 함께 또 다른 부담감도 생긴다. 84년생 꾸준해야 실존적임을 인식해야 한다. 96년생 잘 알아보고 써야만 부작용이 없다.</p> <p>행운의 숫자 : 45, 98</p>	<p>42년생 집착을 떨쳐버리고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54년생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66년생 게을리 하다보면 천후의 한을 남길 수도 있다. 78년생 균형과 실리가 주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90년생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성과가 크다. 02년생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4, 95</p>
<p>37년생 가까스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49년생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쓰게 마련이다. 61년생 순리대로 풀어나간다면 결과가 좋으리라. 73년생 독창적인 방책을 세우자. 85년생 아무리 좋은 방안이 있더라도 먼저 실행하는 이가 임자임을 알라. 97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자.</p> <p>행운의 숫자 : 41, 00</p>	<p>31년생 재물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다. 43년생 내용은 내버려 두 채 외형만으로 인식하기는 큰일 나게 된다. 55년생 뜻 밖에 나타난 경쟁자가 있을 수 있다. 67년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보전할 수 있느니라. 79년생 방치한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91년생 제대로 실행한다면 실속 있는 결과를 산출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3, 44</p>
<p>38년생 목격하는 바는 보이지 않고 불편함만 나타난다. 50년생 암초투성이의 운해로 진입하고 있다. 62년생 반가운 소식이 오거나 손님이 찾아 올 수도 있다. 74년생 행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86년생 초기 계획과는 약간 다르게 이행 될 가능성이 높다. 98년생 넘치는 것은 절대로 부족함만 못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1, 48</p>	<p>32년생 형평성의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44년생 바로 그것이다. 56년생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68년생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는다면 비논리적이다. 80년생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만 결정적인 시기를 포착할 수 있다. 92년생 상당 시간 동안 거친 파도의 시기를 보낸 후에 조금씩 진정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0, 24</p>
<p>39년생 첫 번째의 건이 가장 실속 있고 유력하다. 51년생 가변적인 정황에 맞춰서 진행하자. 63년생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라. 75년생 고비가 찾아오더라도 불굴의 끈기가 필요하다. 87년생 예상 밖의 국면 전환으로 인해서 공허해지는 운세이다. 99년생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9, 22</p>	<p>33년생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45년생 맹목적인 집착은 소모적인 국면이 이르게 한다. 57년생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69년생 비웠을 때 비로소 채울 수 있는 법이다. 81년생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니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93년생 승은 뜻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62, 27</p>
<p>40년생 지나치다면 마찰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52년생 암초만 주의한다면 무난하게 입항할 수 있느니라. 64년생 아예 꾀도 꾸지 않는 것이 속 편하리라. 76년생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편하다. 88년생 밖에 이로우미 있다. 00년생 속사정이 따로 있음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9, 82</p>	<p>34년생 장기 지속되어야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니라. 46년생 단일한 형태가 효율성을 제고 시키리라. 58년생 사뭇귀경하는 법이니 지극히 당연한 결과를 얻게 되리라. 70년생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형국이다. 82년생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발전된 양상으로 이끈다. 94년생 예상해 왔던 바대로 진행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0, 28</p>
<p>41년생 고민하지 말고 상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53년생 애태우며 기다리던 보람이 있을 것이다. 65년생 부분적인 것이 큰 국면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77년생 마무리의 처리가 가치의 고저를 좌우한다. 89년생 지나치다면 미달함만 못 하느니라. 01년생 절만 활용한다면 상당한 수익으로 연결 될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71, 45</p>	<p>35년생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닭 쫓던 개이 양태가 될 수도 있다. 47년생 순조롭게 전개 될 것이니 우려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59년생 거시적 안목이 필요한 때이다. 71년생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불리하다. 83년생 규칙적이어야만 효과를 보는 법이다. 95년생 발단은 가장 가까운 이들과부터 비롯된 것임을 명심하라. 행운의 숫자 : 42, 39</p>